

요코테의 오쿠리본 축제

요코테의 오쿠리본 축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공양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300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8월 15일과 16일에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8월 6일에 '네무리나가시'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양초로 장식하고 짚을 덮은 작은 배를 현지 아이들이 요코테 강으로 옮깁니다. 이 행사는 여름의 더위로 졸음이 몰려온 틈을 타 악귀가 습격하지 못하도록 졸음을 내쫓는 풍습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월 15일에는 시민들이 모여 본오도리 춤을 추고, 16일에는 무게가 800kg 이상 되는 짚을 사용한 대형 야카타부네를 강가로 내보내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야카타부네 출항'을 진행합니다.

오본의 역사

여름에 일본 각지에서 시행되는 '오본'(조상의 넋을 기리는 행사)은 불교의 법회가 기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코테의 오쿠리본 축제는 에도시대(1603~1867년)에 요코테 야나기마치의 주민이 진행한 추모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일본은 3번이나 대기근이 덮쳐 쌀 가격이 급등하여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나기마치의 사람들은 기근으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요코테 강에 짚으로 된 배를 띄워 보냈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의 사람들도 각자 배를 만들어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야카타부네 출항'이라는 형태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야카타부네는 아이들의 '네무리나가시'와 마찬가지로 강가로 옮겨진 후 승려가 '미타마오쿠리'(영혼을 보내는 의식)를 거행합니다. 현재는 야카타부네를 강에 띄워 보내지 않지만, 강에 띄워 보낸 등롱의 불빛이 에도시대의 풍습을 방불케 합니다.

야카타부네 출항(야카타부네 부딪치기)

오쿠리본 축제에 참가하는 야카타부네는 요코테 각 지역의 주민과 가게 주인들이 준비합니다. 뼈대는 지난번 축제에서 사용한 것을 재사용할 수 있지만, 짚으로 만든 선체나 세부는 매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작업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각 참가 지역이 야카타부네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요코테 강의 하천 부지까지 옮깁니다. 8월 15일 본오도리에서는 하천 부지에 늘어서 있는 야카타부네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배를 강에 내려보내고 넋을 기리는 의식이 거행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오쿠리본 축제의 하이라이트, 야카타부네끼리 부딪치는 '후네부쓰케'가 진행됩니다. 다리 위에 내보낸 야카타부네를 두 척씩 마주 보게 하고 뱃머리 끝을 들어 올려 부딪칩니다. 폭죽을 쏘아 올리는 가운데 각 지역의 대표자가 부딪치는 배 위에서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면서 후네부쓰케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